



세량제 새벽 물안개 … 그림속에 살지요

■ 화순 세량리 박상국·김연희 부부 황토집

증고자 매매상이던 박상국(57)·김연희(53)씨 부부는 지난 2001년 11월 광주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에 농가를 구입했다. 수년 전부터 전원생활 준비를 해왔던 박씨 부부는 고3 이던 둘째가 수능시험을 치른 직후 실행에 옮긴 것.

박씨 부부는 96년부터 마을에 9천900여㎡(3천여평) 밭을 임대해 주목과 소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 가꾸는 한편 자투리땅에 채소를 심었다.

박씨는 “이사 전에도 1주일에 한번 정도 들러 농악을 치지 않고 체소밭을 가꿨는데, 새싹이 트는 것에서 즐거움과 생동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사 후에 부인 김연희씨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주를 쑤 된장을 만들고 천연 염색에도 도전해봤다. 점점 자신감이 생긴 부부는 보일러로 난방을 하던 농가 본체옆에 구들장이 떨린 40㎡(12평) 규모의 황토집을 지었다. 지금은 아예 황토집을 살

립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1년에 한 달 정도 실내에서 매주를 끄우지만 흙집인지라 황토가 범새를 빨아들여 특유의 메주냄새는 오래 가지 않는다.

황토 집 앞마당에는 1~3년씩 묵은 된장과 간장들이 담겨 있는 크고 작은 80여개 옹기들이 줄을 지어 서있다. 1년 숙성 된장이 맑은 노란색이라면 3년 묵은 된장은 갈색이다. 오래될수록 색깔은 진해지지만 맛은 순해진다고 한다.

곡성이 고орт인 부인 김씨는 어려서 친정 할머니가 콩을 삶고, 메주를 끄우고 하던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이에 힘입어 김씨는 아래에 지난 2005년 식품허가를 내고 ‘샘풀 식품’이라는 브랜드로

된장을 간장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다. 광은 곡성 농가에서도, 소금은 신안에서 5년 숙성된 천일염을 직접 사와 된장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민박용으로 돌형(버섯형) 황토집 2채를 지었다. 벽은 45cm 두께의 황토를 채우고 중간 중간 소나무를 박았다. 기둥 없이 벽 자체가 지붕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다. 안쪽 벽과 입구 쪽은 메주운 물을 발라 코팅처리했다. 문입구에서 천정을 올려다보면 서까래들이 우산살처럼 펴져 있어 인상적이다. 앞으로 황토집 몇 채를 더 지을 계획이다.

박씨 부부는 “아이들이 비염이 있고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황토집에서 생활한 후로 없어졌다”며 “황토집에서 민박하고 황토염

색 등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씨 집집뿐인 세량리는 최근 2~3년 새 전국적으로 ‘떴다’. 그것은 동네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인 ‘세량제’의 4월 봄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이장직을 맡고 있는 박씨는 올해도 새벽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사진 동호인들을 안내했다. 주민들은 세량제를 찾는 사진동호인들에게 호의적이다. 마을입구에는 환영 플래카드까지 내걸려있다.

3년전 화순군이 이곳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사진동호인들이 군청 홈페이지 등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무산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사진작가들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마을주민들이 새벽에 차를 대접하기도 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사진 동호인들과 낚시꾼, 산나물을 캐는 사람까지 몰리며 주민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저수지 위치를 몰라 한밤중에 마을을 안쪽까지 차를 몰고 들어와 수면을 방해함은 물론 작물이 심어진 밭에 무단주차하거나 쓰레기를 방치하고 심지어 밭에 심어놓은 땅두릅이나 조경수 등을 뽑아가는 사례가 잦아 주민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지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지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씨 부부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고나면 풀”이어서 끊임없이 땅밭속에서 일을 해야만, 밀을 수 있는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사계절 변화하는 전원 속에서 생활하며 육심이 줄어들고, 소박한 생활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세량제를 작은 관광지로 꾸미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체험 마을 등을 조성, 마을소득을 올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